

##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We will make your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전에서 화려하게 등장한 구호다.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쾌거 못지않게 오랜 동안 온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고 지금도 자주 등장하는 이 구호는 어떤 마력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잘 될 거야’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 확신 등과 같은 자기 암시를 통해 긍정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말이다.

건축사는 의뢰인의 꿈을 이루어 주기위해 스스로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림 같은 작은 주택에서부터 국토를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까지 건축사가 먼저 꿈을 꾸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한다. 미래에 세워질 건축물에 대한 기대로, 관계된 모든 이들은 꿈을 꾀다. 주택, 아파트, 고층건물, 공장, 쇼핑몰 등등. 새집을 짓고 그곳에 살 사람, 새집을 지어 팔 사람, 새집을 지어 제품을 생산할 사람들 모두가 꿈을 꾸고 있다. 그들의 꿈을 건축사가 현실로 그려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사에게 현실은 꿈이 아니다. 우리 건축사에게서 꿈은 한낱 사치품이 되어 버렸다. 꿈을 잃어버린 건축사, 날개 잃은 새가 아닌가.

이 땅에서 건축사란 어떤 존재인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평균건축사’라는 건축문화신문의 기사를 읽었다. 건축사의 40%가 대학원을 나온 석사, 박사이고 84%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부채를 지고 있으며, 또한 45%의 건축사가 연간 1억원 이하의 수주를 하고 있다는 참담한 내용이다. 이미 느끼고 있는 내용이나 건축사 아닌 남이 볼까봐 낮이 붉어지는 기분이다. 특히나 젊은 대학생 후배들, 남들보다 1년씩이나 더 긴 5년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예비건축사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을 잃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우리를 이 지경에 처하게 만들었나. 그것은 건축을 경제논리로, 부동산으로만 보려는 저급한 문화 환경과 대형자본의 개발주도로 인한 설계분야의 종속화, 턴키, BTL 등 개발편의를 위한 프로젝트의 대형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외적인 이유로 들기도 한다.

하지만 외적인 요인 외에 우리건축사들에게도 그 원인이 있지는 않았을까. 왜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업역인 도시계획, 인테리어, 조경뿐만 아니라 대형건물의 감리까지 모두 내어주고 시공사에게 설계권마저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되었을까. 그것은 협력하는 하나이기 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대형사무소와 소규모사무소, 작품 한다는 아프리카와 허가방, 서울과 지방, 그리고 건축계를 대변한다는 협회조차도,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있었다.

이제는 문화의 시대요, 디자인이 경쟁력인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시대의 주역은 누구인가. 바로 건축사가 아니겠는가. 한 목소리로 이 디자인 시대를 선도해 나갈 때 우리의 살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는 분열에서 화합으로 이시대의 건축문화를 선도해나가야 한다.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 암담해 질 것이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설회사의 하청업체로, 대다수의 건축사사무소들은 대형사무소의 외주업체로 건축사들은 국민들로부터 용역업자로 지칭될 것이다. 그나마 간직한 자긍심마저 땅에 떨어지면 이 땅에 건축사가 설자리는 없을 것이다.

그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을까?

우리는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



이용우 / Lee, Yong-woo KIRA  
칸·도시건축사사무소

####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 본지 편집위원회 위원
-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
- 건축대전 초대작가
-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